

삼성, KGC 꺾고 선두 ‘포스트의 힘’

라틀리프 27점·16R 골밀 장악
SK는 82-70 LG 누르고 3연승



삼성이 강력한 포스트를 앞세워 KGC를 꺾고 단독 1위로 도약했다. 삼성은 8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홈경기에서 KGC에 80-74로 승리를 거두고 3연승과 함께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이날 두 팀의 경기는 공동 1위간의 맞대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결과에 따라 한 팀은 단독 1위, 다른 한 팀은 2위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벌인 진검승부였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3승1패로 앞서있는 삼성은 KGC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리카르도 라틀리프(27점·16리바운드), 마이클 크레이(6점·7리바운드·7어시스트), 문태영(20점·4리바운드), 김준일(7점·2리바운드) 등 골밀 공격에 능한 선수가 많아 KGC와의 포스트 경쟁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뜰이나 골밀 열세에 있는 KGC는 센터 오세근이 지난 5일 LG전에서 허리 부상을 당해 경기에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삼성 이상민 감독은 “포스트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문제는 외곽수이다. 4라운드에서 패배(73-83)할 때도 외곽수가 너무 안 터졌다. 3점슛 17개를 던졌는데 3개 밖에 안 들어갔다(성공률 17.6%). 많지도 필요 없다. 단 한개만 터져도 된다. 어차피 1~2골 싸움에서는 우리가 유리하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삼성은 이날 승부처인 4쿼터에서 3점슛이 침묵했다. 3쿼터까지 6개(14개시도)의 3점슛을 성공시켰지만 4쿼터에는 단 한개도 나오지 않았다. 상대 수비에 외곽이 봉쇄되자 삼성은 아예 골밀 공격에 집중했다.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경기 막바지까지 KGC와 얹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을 벌인 삼성은 66-68로 뒤진 4쿼터 종료 2분28초전 김준일의 덩크슛으로 동점을 만든 뒤 문태영이 연속 골밀 득점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 이어 74-71로 앞선 경기 종료 26.3초전에는 김태술(7점·4어시스트)이 상대 파울로 얻은 자유루 2개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힘겹게 KGC의 추격을 뿌리쳤다. 승리를 가



삼성 리카르도 라틀리프(오른쪽)가 8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KGC와의 홈 경기에서 이정현의 마크를 피해 골밀슛을 하고 있다. 라틀리프는 27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단독 1위로 이끌었다. 촬영 | 김충현 기자 won@donga.com

저간 삼성은 26승11패로 순위표 맨 위에 홀로 이름을 올렸고, KGC는 25승12패가 되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이날 경기에서 두 팀 선수들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도 페어플레이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30일 펼쳐진 4라운드에서 삼성의 문태영과 KGC의 양희종은 수차례 ‘트래시 토크’를 주고받는 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를 의식한 듯

양 팀 선수들은 상대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고 거친 파울을 한 뒤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경기는 1위 경쟁을 떠나 스포츠맨십의 의미를 높인 경기이기도 했다.

잠실학생체육관에서는 8위 SK가 7위 LG를 82-70으로 꺾고 3연승을 달렸다.

촬영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KDB생명, KEB하나은행 꺾고 공동 4위

KDB생명이 8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삼성생명 여자 프로농구' 6라운드 KEB하나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61-57로 승리했다. 전날까지 공동 최하위에 머물러 있던 KDB생명은 이날 승리로 KEB하나은행과 나란히 11승 17패를 마크하며 공동 4위로 올라섰다. 3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티켓 싸움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두 팀과 3위 신한은행(11승16패)

과는 0.5경기차. KDB생명은 한채진이 11득점, 김소담과 이경은이 각각 10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외국인 선수 카리마 크리스마스가 8득점·5리바운드로 힘을 보탰다. KEB하나은행은 에이스 강이슬이 15점을 쏴으며 분전했지만 팀 패배로 빛을 잃었다.

김주성, 금메달 연금 장애포동에 기부

동부 김주성(동부)이 과거 2차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수령한 연금을 지역 장애인들에게 기

부한다.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주성은 지난해부터 매월 연금을 원주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주지역 장애인 3명에게 1년간 연금을 지원했고, 올해는 장애인 3명을 새롭게 선정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부 형태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김주성은 12일 SK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원창목 원주시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편집 | 김태진 기자 bong82@donga.com

무릎 부상 김종규, 시즌 내 복귀 가능할까?

(LG)

복귀 의지 강해… 전문병원서 재활

LG 센터 김종규(26·207cm)는 2016~2017 시즌 내로 복귀할 수 있을까.

김종규는 5일 KGC전 도중 상대 선수의 발에 걸려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6일 병원 검진을 받았고, 8~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 진단 결과대로라면 시즌 내 복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드시 시즌 내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하게 복귀의지를 드러냈다.

희망적인 소식도 들린다. 김종규는 7일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1차 검진 결과보다는 회복이 빠를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시즌 개막에 앞서 다쳐던 부위에 다시 부상을 입었지만, 주변 근육과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재활이 순조롭다면 8주 이전에 경기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이에 구단도 김종규가 일본에 있는 전문병원에서 재활을 진행하도록 돕기로 했다.

LG 관계자는 8일 “조성민이 재활했던 병원으로 김종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정도에는 출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규가 이번 시즌 개막 이전에 같은 부위를 다쳤을 때도 병원 진단보다 2주 정도 빨리 복귀한 바 있다. 그만큼 김종규의 회복능력이 좋은 편”이라며 “본인도 시즌 내 복귀의지가 강하다. (시즌 내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



수와 구단 모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규는 8일 '2016~2017 KCC 프로농구' 4라운드 최우수선수(MVP)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자단 투표에서 총 유효표 91표 중 54표를 얻어 16표의 박찬희(전자랜드)를 따돌렸다. 김종규는 4라운드 8경기에 평균 33분8초간 출전해 16.3점(국내 1위)·7.1리바운드(국내 4위)를 기록했다. 김종규는 기념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을 받는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여자농구 멎들게하는 징벌성 야간훈련



프로농구선수들이 때면 완벽한 경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경기력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기복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각 팀 감독은 선수들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꾸준하게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그 중 하나는 ‘문책성 지시’다.

감독들의 문책성 지시 중 가장 흔한 것은 자유루 연습 때 실패한 선수에게 코트 양복 달리기를 시키는 것이다. 경기 도중 약속한 팀플레이를 어겨거나, 지나친 개인플레이로 흐름을 깨는 선수를 곧장 벤치로 불러들이는 것 또한 자주 볼 수 있는 문책성 지시의 하나다. 여기에는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문제는 단순히 문책으로 끝나지 않고, 선수들의 피로누적과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징벌성 훈련’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는 데 있다. 경기 후 2~3시간씩 야간훈련을 지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징벌성 훈련이다. 남자프로농구에선 이제 이 같은 징벌성 훈련은 거의 사라졌다. 선수

들의 피로와 불만만 높일 뿐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프로농구에는 아직도 징벌성 훈련이 남아있다. 실제로 올 시즌 2개 팀이 경기 후 자정이 넘도록 밤샘훈련을 했다. 경기력을 높이 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지만, 징벌을 가하더라도 선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80~1990년대에 선수생활을 한 몇몇 감독들은 “우리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했다”고 말하지만, 요즘 선수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지금은 2010년대다. 선수들에게 짧은 시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훈련방법을 제시하고, 훈련의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하는 시대다.

여자프로농구선수들은 정규리그 35경기를 치르는 장기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지나친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선수들의 피로도도 부상 위험성만 증가시킬 뿐이다. 여기에 감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따라붙는다. 팀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좁지 않다.

한 구단 관계자는 “지금도 어느 시대인데… 너무 구시대적인 방법 아닌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때도 있다”며 혀를 찼다.

NAVER **곤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다 함께 웃는 브랜드

60년 전통 가마솥

곤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주방장 없이 어디서나 초보자도 쉽게 창업

장사가 안되십니까? 요즘 불황에 뜨고있는 국밥집
업종 변경으로 성공난 대박 집 70여곳!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업종 전환 **300만원**으로 **OPEN**

간판, 그릇, 홍보, 포스 지원

맞춤형 창업 / 별어서 값으세요! 이익내서 받겠습니다

곤지암에서 일매출 500 만원 이상 판매 되고 있는 소머리국밥으로 지역에서 명소가 되세요!

가맹점/취급점 모집

1588-3892

성공 사례

일매출 10만원~30만원 팔던 가게
고민끝에 간판 바꿔 업종변경으로
일매출 150만원

메뉴/선택가능

소머리국밥,순대국, 육개장, 갈비탕
설렁탕, 곰탕, 감자탕, 소머리수육
마늘보쌈, 갈비찜, 곱창구이

2월 오픈예정점

창원점, 보은점, 김천점,
대전북수점, 효자동점, 상모점,
거제2호점, 제주연동점, 신내점,포항점